

<2021년도>

제5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①	③	⑤	③	⑤
6	7	8	9	10
⑤	④	④	⑤	⑤
11	12	13	14	15
⑤	③	④	③	④
16	17	18	19	20
③	②	⑤	②	④
21	22	23	24	25
③	②	①	③	①
26	27	28	29	30
②	③	②	②	④
31	32	33	34	35
②	②	①	②	⑤
36	37	38	39	40
②	②	①	③	②
41	42	43	44	45
④	③	①	④	①
46	47	48	49	50
⑤	③	①	⑤	③

01 -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경기도 김포시 신안리 유적 발굴 조사에서 총 23기의 집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집터 내부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 갈돌, 갈판 등의 유물을 통해 정착 생활과 농경이 시작된 (가) 시대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포 신안리 집터 유적에서 빗살무늬 토기 등 출토

- ①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 ② 명도전을 사용하여 중국과 교류하였다.
- ③ 의례 도구로 청동 방울 등을 사용하였다.
- ④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 ⑤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정답> ①

'김포 신안리 집터 유적에서 빗살무늬 토기 등 출토'라는 제목 아래 '경기도 김포시 신안리 유적 발굴 조사에서 총 23기의 집터가 확인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집터 내부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 갈돌, 갈판 등의 유물을 통해 정착 생활과 농경이 시작된 (가) 시대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신석기' (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은 것은 신석기 시대이다.

오답 해설>

- ② 명도전을 사용하여 중국과 교류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이다.
- ③ 의례 도구로 청동 방울 등을 사용한 것은 청동기 시대이다.
- ④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이다(비파형 동검이라면 청동기 시대에 해당).
- ⑤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한 것은 청동기 시대이다.

02 - 초기 국가, 동예

2.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대군장이 없고 관직으로는 후·읍군·삼로가 있다. ……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 낙랑의 단궁이 그 지방에서 산출되고 무늬 있는 표범이 많다. 과하마가 있으며 바다에서는 반어가 난다.

-『후한서』-

- ①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 ②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③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 ④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 ⑤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정답> ③

'대군장이 없고 관직으로는 후·읍군·삼로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무천),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 낙랑의 단궁이 그 지방에서 산출되고 무늬 있는 표범이 많다. 과하마가 있으며 바다에서는 반어가 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가 가리키는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임을 알 수 있다.

동예에는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오답 해설>

- ①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한 나라는 삼한이다.
- ②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옥저이다.
- ④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한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 ⑤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한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이다.

03 - 대가야

3. (가)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가) 체험 축제

이진아시왕이 고령 일대에 세운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요 프로그램 ◆

- 금동관 모형 제작하기
- 투구와 갑옷 착용하기
- 지산동 고분군 야간 트레킹



- 기간: 2021년 ○○월 ○○일~○○일
- 장소: 경상북도 고령군 일대

- ① 범금 8조의 의미를 살펴본다.
- ②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분석한다.
- ③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경위를 찾아본다.
- ④ 22담로에 왕족이 파견된 목적을 알아본다.
- ⑤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과정을 조사한다.

정답> ⑤

'(가) 체험 축제'라는 제목 아래 '이진아시왕*이 고령 일대에 세운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주요 프로그램으로 '금동관 모형 제작하기', '투구와 갑옷 착용하기', '지산동 고분군 야간 트레킹'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한 '대가야'임을 알 수 있다.

*이진아시왕: 대가야국의 시조(기원후 42년경). 별칭으로 내진주지, 뇌질주일이라고도 한다. 금관가야 시조 수로왕의 형이다.

400년 신라를 구원하려 온 고구려군의 공격에 의해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던 금관가야의 세력이 약화되고 이후부터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게 되었다. 즉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이동하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범금 8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고조선이다.
- ② 임신서기석과 관련된 나라는 신라이다. 명문의 임신년(壬申年)은 552년(진흥왕 13) 또는 612년(진평왕 34) 중 어느 한 해일 것으로 판단된다.
- ③ 668년 8월 나당 동맹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지역에 안동도호부가 설치되었다(9도호부 42주 100현으로 나뉘지고, 당시의 장수 설인귀가 도호부사로 임명됨).
- ④ 22담로에 왕족이 파견된 나라는 백제이다(6세기 초인 무령왕대).

04 - 신라 법흥왕(불교 공인)

4. 밑줄 그은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국보 제242호인 울진 봉평리 신라비로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한 이 왕 때 건립되었습니다. 이 비석에는 신라 6부의 성격과 관등 체계, 지방 통치 조직과 촌락 구조 등 당시 사회상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①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 ②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③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 ④ 인재 등용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 ⑤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정답> ③

'이것은 국보 제242호인 울진 봉평리 신라비로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한 이 왕 때 건립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비석에는 신라 6부의 성격과 관등 체계, 지방 통치 조직과 촌락 구조 등 당시 사회상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왕'은 신라의 제23대 왕인 법흥왕(재위 514-540)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울진 봉평리 신라비가 세워진 것은 법흥왕 11년인 524년의 일이다. 이차돈(506~527)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것은 신라 법흥 왕 14년인 527년의 일이다(*528년 공인설 있음).

오답 해설>

- ①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한 것은 지증왕 12년인 512년의 일이다.
- ②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한 것은 신문왕 대의 일이다 [각 687(신문왕 7)/689(신문왕 9)].
- ④ 인재 등용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시행한 것은 원성왕 4년인 788년의 일이다.
- ⑤ 거칠부(502~579)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하게 한 것은 진흥왕 6년인 545년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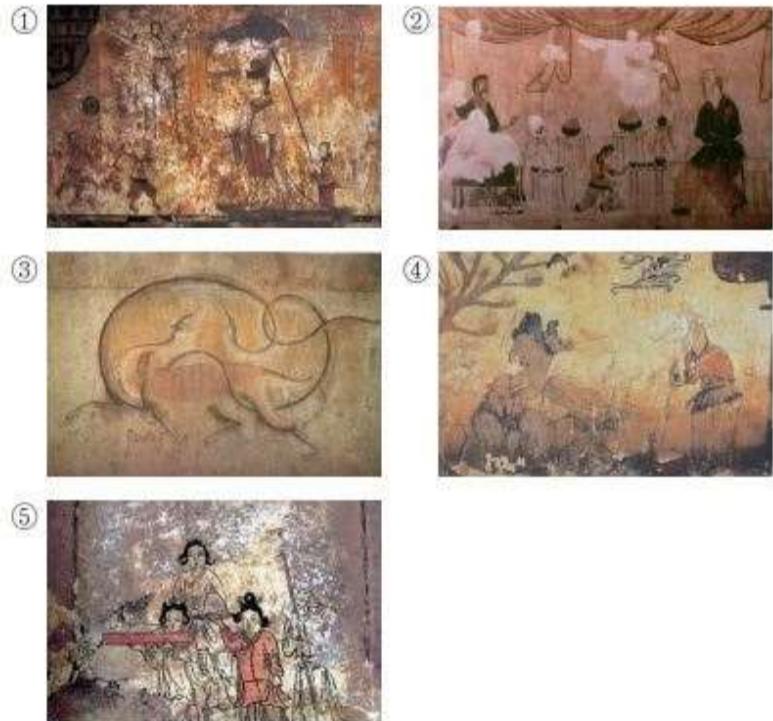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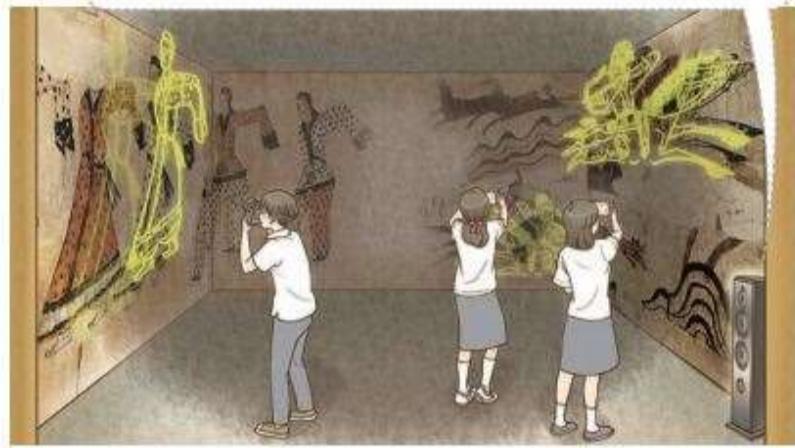
5번 오답 해설>

- ③ (평남 강서에 있는) 강서대묘의 현무도이다(6세기 후반 7세기 초, 사신도의 하나). 널방 북벽에 그려져 있는 현무는 사신(四神)의 하나로 북쪽을 관장하는 신령[수호신]이다. 거북과 뱀이 얹혀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 ④ 각저총 씨름도이다. 중국 지린성 지안현 태왕향 우산촌에 소재하며, 각주실(主室) 동쪽 벽에 그려져 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05 - 고구려 고분 벽화

5. 밑줄 그은 '이 국가'의 벽화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이 국가의 고분 벽화는 도읍이었던 지안과 평양 일대에 주로 남아 있는데, 일상생활과 풍속, 신앙과 의례를 묘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벽화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을 생생하게 만나 보세요.



정답> ⑤

'이 국가의 고분 벽화는 도읍이었던 지안과 평양 일대에 주로 남아 있는데, 일상생활과 풍속, 신앙과 의례를 묘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국가'는 고구려임을 알 수 있다.

선지 ⑤는 고구려의 고분 벽화가 아니라 고려 말의 문신인 박익(1332~1398)의 묘에 있는 벽화의 일부이다(밀양 박익 벽화묘, 1420년에 축조). 고려 말과 조선 초 여성들의 의복과 장신구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고구려 고분은 90여 개가 발견되었다.

오답 해설>

- ① (평남 강서에 있는) 수산리 고분 벽화이다. 평안남도 강서군 수산리에 소재하며,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알 수 있는 인물 풍속화가 널방의 동서남북 네 벽에 그려져 있다. 제시된 그림은 서쪽 벽으로 가운데 띠를 두고 위와 아래에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 위쪽 그림으로, 주인 부부가 시종들을 데리고 곡예를 구경하는 모습이다. 수산리 고분 벽화는 일본 나라 지방의 다카마쓰 고분 벽화에 영향을 주었다.

- ② 무용총 접객도이다. 중국 지린성 지안현 통거우에 소재하며, 널방(묘실)의 북쪽 벽에 그려져 있다. 신분에 따라 인물의 크기를 다르게 그렸음을 알 수 있다. 각저총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무용총에는 접객도 외에 무용도, 수렵도도 있는데 역동적이고 활달한 화풍을 가진 가장 고구려적인 벽화로 평가받고 있다.

06 - 보덕왕 임명(안승)

6.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잔치를 크게 열어 장수와 병사들을 위로하였다. 왕과 [소]정방 및 여러 장수들은 당상(堂上)에 앉고, 의자와 그 아들 응은 당하(堂下)에 앉혔다. 때로 의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니 백제의 좌평 등 여러 신하는 모두 목이 메어 울었다.

(나)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설인귀와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싸웠으나 잇달아 패배하였다. [시득은] 다시 진군하여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삼국사기』-

- ①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하였다.
- ②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피살되었다.
- ③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 ④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 ⑤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왕으로 임명되었다.

정답> ⑤

(가)에 '잔치를 크게 열어 장수와 병사들을 위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과 [소]정방 및 여러 장수들은 당상(堂上)에 앉고, 의자와 그 아들 응은 당하(堂下)에 앉혔다. 때로 의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니 백제의 좌평 등 여러 신하는 모두 목이 메어 울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직후의 상황을 나타내는 사료임을 알 수 있다(660.7, 태종 무열왕 7).

(나)에는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설인귀와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싸웠으나 잇달아 패배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시득은] 다시 진군하여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나당 전쟁의 사실상의 마지막 전투인 기벌포 전투[해전]와 관련된 사료임을 알 수 있다(676.11, 신라 문무왕 16).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왕으로 임명된 것은 674년(문무왕 14)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고구려의) 고국원왕(재위 331-371, 제16대)이 평양성에서 전사한 것은 371년의 일이다.
- ② 성왕(재위 523-554, 제26대)이 관산성 전투에서 피살된 것은 554년의 일이다.
- ③ 김춘추(604~661)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킨 것은 648년의 일이다(나당 동맹 체결).
- ④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친 것은 612년의 일이다(살수 대첩).

07 - 발해

7.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오늘 소개해 주실 자료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일본의 이시야마사에 소장된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니기입니다. 해동성국이라 불린 (가)의 사신 이거정이 가져간 것으로 당시 양국의 교류와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① 광군을 창설하여 외침에 대비하였다.
- ②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 ③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추었다.
- ⑤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 '오늘 소개해 주실 자료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이것은 일본의 이시야마사에 소장된 가구영험불정존승다라니기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해동성국이라 불린 (가)의 사신 이거정이 가져간 것으로, 당시 양국의 교류와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발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발해는 선왕 대(재위 818-830)에 이르러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추었다.

오답 해설>

- ① 광군을 창설하여 외침에 대비한 국가는 고려이다(947, 정조 2).
- ②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한 국가는 (통일)신라이다[각 687(신문왕 7)/685(신문왕 5)].
- ③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국가는 고려이다(고려 광종 대).
- ⑤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한 국가는 신라이다(673, 문무왕 13).

08 - 신라 말의 정치적 사건들

8.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에서 일어났는데, 붉은색 바지를 입어 모습을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적고적(赤袴賊)이라고 불렸다. 그들은 주와 현을 도륙하고, 수도의 서부 모량리까지 와서 민가를 노략질하고 돌아갔다.

(나) 웅천주 도독 현창은 그의 아버지 주원이 임금이 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이라 하고, 연호를 세워 경운 원년이라 하였다.

(다) 아찬 우징은 청해진에 있으면서 김명이 왕위를 빼앗았다는 소식을 듣고 청해진 대사 궁복에게 말하였다. “김명은 임금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 장군의 군사를 빌려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삼국사기』-

① (가) - (나) - (다)

③ (나) - (가) - (다)

⑤ (다) - (가) - (나)

② (가) - (다) - (나)

④ (나) - (다) - (가)

정답> ④

(가)에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에서 일어났는데, 붉은색 바지를 입어 모습을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적고적(赤袴賊)이라고 불렸다. 그들은 주와 현을 도륙하고, 수도의 서부 모량리까지 와서 민가를 노략질하고 돌아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신라 말에 발생한 적고적의 난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896, 진성 여왕 10).

(나)에는 '홍천주 도독 현창은 그의 아버지 주원이 임금이 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이라 하고, 연호를 세워 경운 원년이라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라 현덕왕 대에 발생한 김현창의 난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822, 현덕왕 14).

(다)에는 '아찬 우징은 청해진에 있으면서 김명이 왕위를 빼앗았다는 소식을 듣고 청해진 대사 궁복에게 말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김명은 임금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 장군의 군사를 빌려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김명이 왕위를 빼앗아[희강왕 축출] 신라의 제44대 왕인 민애왕(재위 838-839, 제44대)이 된 것은 838년의 일이다.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다)-(가)'가 된다.

09 - 백제 역사 유적 지구

9.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답사 계획서

- 주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찾아서
- 기간: 2021년 00월 00일~00일
- 답사 지역 및 일정 안내

① (가) - 백제 금동 대향로가 출토되었다.

② (나) - 온조왕이 왕성으로 삼았다.

③ (다) - 재상을 선출하던 천정대가 있었다.

④ (라) -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⑤ (마) - 석탑 해체 과정에서 금제 사리봉영기가 발견되었다.

정답> ⑤

'답사 계획서'라는 제목 아래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찾아서'가 주제로 나와 있다. 이어 제1일차에는 '(가) 송산리 고분군, (나) 공산성'이(이상 충남 공주), 제2일차에는 '(다)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라) 능산리 고분군'이(이상 충남 부여), 제3일차에는 '(마) 미륵사지'(이상 전북 익산)가 제시되어 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과정에서 금제 사리봉영기가 발견되었다.

오답 해설>

① 백제 금동 대향로가 출토된 곳은 충남 부여 능산리 고분군과 나성 사이이다.

② 온조왕(재위 기원전 18-기원후 27)이 왕성으로 삼은 곳은 하남 위례성으로, 오늘날 서울의 풍납토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③ 재상을 선출하던 천정대가 있었던 곳은 충남 부여 규암면 호암리이다. 천정대와 호암사지에서 백제의 귀족 회의인 정사암 회의가 열렸다.

④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 즉 무령왕릉이 발굴된 것은 충남 공주 송산리 고분군이다.

10 - 견훤

10.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가) 은/는 왕의 족제(族弟)인 김부에게 왕위를 잇게 하였다.
그런 후에 왕의 아우 효령과 재상 영경을 사로잡았다.
- (가) 은/는 넷째 아들 금강이 키가 크고 지혜가 많아 특히
아끼어 왕위를 전하려 하니, [금강의] 형 신검, 양검, 용검 등이
이를 알고 몹시 근심하고 번민하였다.

-『삼국유사』-

- ①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을 실시하였다.
- ②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 ③ 김흠돌을 비롯한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하였다.
- ④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 ⑤ 오월(吳越)에 사신을 보내고 겸교태보의 직을 받았다.

정답> ⑤

위의 자료에 '(가)은/는 왕의 족제(族弟)인 김부에게 왕위를 잇게 하였다. 그런 후에 왕의 아우 효령과 재상 영경을 사로잡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김부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재위 927-936, 제56대)이다. 후백제의 견훤(867~936)이 927년 신라 경주에 쳐들어와 경애왕을 죽인 뒤 김부를 왕위에 올린 사건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자료에는 '(가)은/는 넷째 아들 금강이 키가 크고 지혜가 많아 특히 아끼어 왕위를 전하려 하니, [금강의] 형 신검, 양검, 용검 등이 이를 알고 몹시 근심하고 번민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후백제에서 왕위를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나 견훤이 금산사(전북 김제 소재)에 유폐되기 직전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935).

견훤은 남중국의 오월(吳越)에 사신을 보내고 겸교태보의 직을 받았다.

오답 해설>

- ①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을 실시한 인물은 고려의 충선왕(재위 1298/1308-1313, 제26대)이다(1298, 충선왕 즉위년).
- ②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송악에서) 철원으로 천도한 인물은 후고구려의 궁예(?~918)이다(905).
- ③ 김흠돌을 비롯한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한 인물은 신라의 신문왕(재위 681-692, 제31대)이다(681, 신문왕 원년).
- ④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인물은 고려의 태조(재위 918-943)이다(936, 태조 19).

11 - 고려 성종의 업적

11.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점]

왕이 "중앙의 5품 이상 관리들은 각자 봉사를 올려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논하라."라고 명령하였다. 최승로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 이제 앞선 5대 조정의 정치와 교화에 대해서 잘되고 잘못된 행적들을 기록하고, 거울로 삼거나 경계할 만한 것들을 삼가 조목별로 아뢰겠습니다. …… 신이 또 시무(時務) 28조를 기록하여 장계와 함께 따로 봉하여 올립니다."

-『고려사절요』-

- 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
- ②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 ③ 청연각과 보문각을 두어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 ④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
- ⑤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정답> ⑤

'왕이, 중앙의 5품 이상 관리들은 각자 봉사를 올려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논하라고 명령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최승로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 이제 앞선 5대 조정의 정치와 교화에 대해서 잘되고 잘못된 행적들을 기록하고, 거울로 삼거나 경계할 만한 것들을 삼가 조목별로 아뢰겠습니다. …… 신이 또 시무(時務) 28조를 기록하여 장계와 함께 따로 봉하여 올립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최승로(927~989)가 고려 성종(재위 981-997, 제6대)에게 올린 시무 28조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982, 성종 원년).

고려 성종은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다(983, 성종 2).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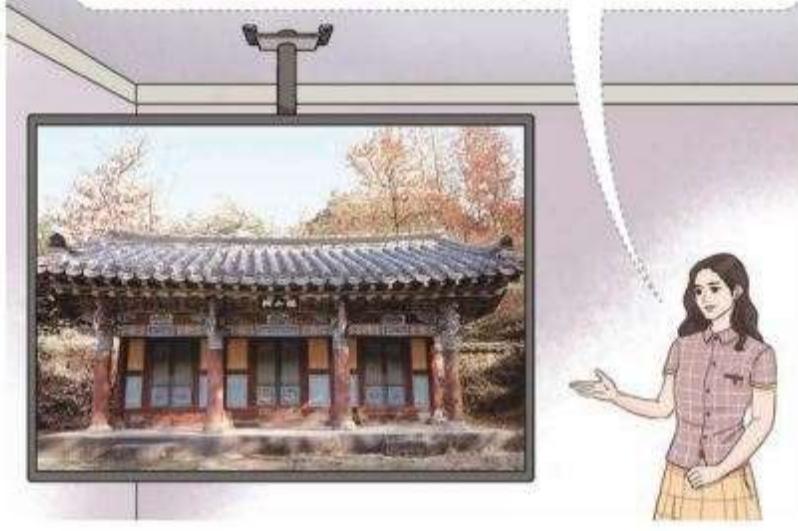
- 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흑창을 처음 설치한 왕은 고려 태조(재위 918-943)이다(918, 태조 원년).
- ②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한 왕은 고려 광종(재위 949-975, 제4대)이다(956, 광종 7).
- ③ 청연각과 보문각을 두어 학문 연구를 장려한 왕은 고려 예종(재위 1105-1122, 제16대)이다(각 1116, 예종 11).
- ④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한 (대표적인) 왕은 고려 공민왕(재위 1351-1374, 제31대)이다(1366, 공민왕 15).

12 - 별무반

12.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곳은 오연총 장군을 모신 덕산사입니다. 원래 함경도 경성에 있던 사당을 지금의 전라남도 곡성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된 (가)의 부원수로 활약하였습니다.



- ① 4군 6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②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
- ③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 ④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 ⑤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하였다.

정답> ③

'이곳은 오연총 장군을 모신 덕산사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원래 함경도 경성에 있던 사당을 지금의 전라남도 곡성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된 (가)의 부원수로 활약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고려의 별무반임을 알 수 있다(1104, 고려 숙종 9). 별무반은 고려 예종 2년인 1107년에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오답 해설>

- ① 4군 6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한 것은 조선 세종 대의 일이다(각 1433~1443/1434~1449).
- ②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한 것은 고려 충렬왕 대의 일이다[1274(충렬왕 즉위년)/1281(충렬왕 7)].
- ④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한 것은 몽골의 제2차 침입 시의 일이다(1232, 고려 고종 19).
- ⑤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한 부대는 삼별초이다(1232~1273).

13 - 삼국사기

13. 밑줄 그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이번에 왕명을 받아 편찬한 역사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 책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뒤,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잘 알아야 한다는 폐하의 말씀에 따라 유교 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를 충실히 기록하였습니다.



- 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 ②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 ③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 ④ 본기, 열전 등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 ⑤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 '이번에 왕명을 받아 편찬한 역사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이 책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뒤,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잘 알아야 한다는 폐하의 말씀에 따라 유교 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를 충실히 기록하였습니다'는 대답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역사서'는 김부식(1075~1151) 주도로 편찬된 삼국사기임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는 본기, 열전 등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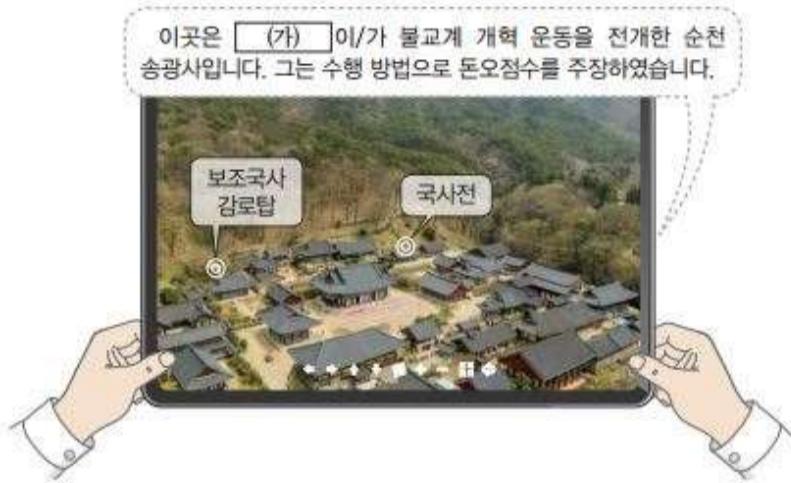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역사서는 영재 유득공(1748~1807)의 발해고이다(1784, 조선 정조 8).
- ②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된 역사서는 조선 왕조 실록이다.
- ③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한 역사서는 보각국사 일연(1206~1289)의 삼국유사이다(1285, 충렬왕 11).
- ⑤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한 역사서는 이규보(1168~1241)의 동명왕편이다(1193, 명종 23).

14 - 불일보조국사 지눌

14.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승려들의 전기를 담은 해동고승전을 집필하였다.
- ②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 ③ 권수정혜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혜쌍수를 강조하였다.
- ④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 ⑤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정답> ③

'이곳은 (가)이/가 불교계 개혁 운동을 전개한 순천 송광사입니다. 그는 수행 방법으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습니다'는 내용이나와 있다. 이어 사진 속에는 '보조국사 감로탑'과 '국사전'이 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불일보조국사 지눌(1158~1210)임을 알 수 있다.

지눌은 권수정혜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혜쌍수를 강조하였다(1190, 고려 명종 20). 지눌은 권수정혜결사문에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을 것을 결의하였다. 먼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행자들이 갖기 쉬운 의문을 제시하고 그에 답한 다음, 정혜결사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오답 해설>

- ① (왕명에 의해) 승려들의 전기를 담은 해동고승전을 집필한 인물은 각훈(?~?)이다(1215, 고종 2).
- ②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한 인물은 신라의 고승, 의상이다(668, 문무왕 8).
- ④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한 인물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다(고려 선종 3년인 1086년에 교장도감 설치). 흔히 속장경이라 일컬어지는 불교 경전 주석서가 바로 교장(敎藏)이다.
- ⑤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한 인물은 균여(923~973)이다(광종 대인 963년과 967년 사이에 지음).

15 - 고려의 경제 상황

15. 밑줄 그은 '토지 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초량 왜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하였다.
- ②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활동하였다.
- ③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 ④ 국가 주도로 삼한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 ⑤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였다.

정답> ④

맨왼쪽 말풍선에 '이번에 개정된 토지 제도에 대해 들었는가?'라는 말이 나와 있다. 가운데 말풍선에는 '들었네. 인품을 배제하고 관직과 위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고 하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지급 기준이 점차 정비되어 가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토지 제도'는 고려 목종 월년인 998년의 개정 전시과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국가 주도로 삼한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된 것은 고려 숙종 대(재위 1095~1105)이다.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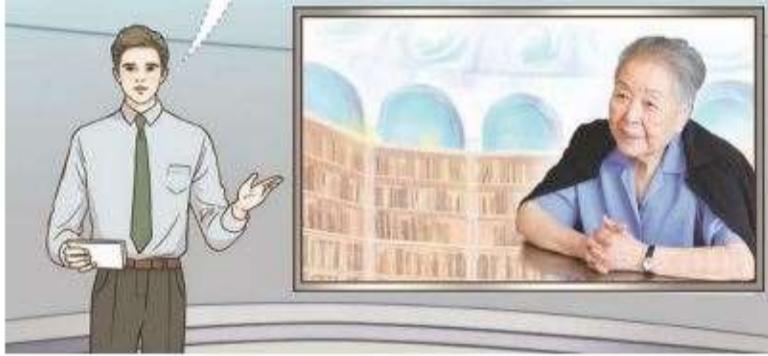
- ① 초량 왜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한 국가는 조선이다(1678, 숙종 4).
- ②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활동한 국가 역시 조선이다(조선 후기).
- ③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된 국가는 신라이다(509, 신라 지증왕 10).
- ⑤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수세제를 시행한 국가는 조선이다(1651, 조선 효종 2).

16 - 직지심체요절

1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을 찾기 위해 헌신한 박병선 박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녀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된 (가)을/를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외규장각 의궤의 반환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 ①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 ② 세금 수취를 위해 3년마다 작성되었다.
- ③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④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하였다.
- ⑤ 충신, 효자, 열녀를 알리기 위해 간행하였다.

정답> ③

'국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을 찾기 위해 헌신한 박병선 박사(1928~2011)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예정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녀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된 (가)을/를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외규장각 의궤의 반환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직지심체요절임을 알 수 있다 (1377, 우왕 3).

직지심체요절은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오답 해설>

- ①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것은 퇴계 이황(1501~1570)의 성학십도이다(1568, 선조 원년).
- ② 세금 수취를 위해 3년마다 작성된 것은 신라 촌락 문서이다. 지금의 충북 청주 부근인 서원경의 4개 촌을 대상으로 작성된 신라 촌락 문서는 노동력 동원과 세금 징수를 위해 작성되었다. 작성된 시기로는 755년설(경덕왕 14), 816년설(현덕왕 8), 876년설(헌강왕 6) 등 여러 설이 있다..
- ④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된 것은 초조대장경이다. 고려 현종 2년인 1011년에 발원하여 선종 4년인 1087년에 최종 완성되었다. 고려 최초의 대장경으로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였으나 몽골의 제2차 침입 때(1232) 소실되고 말았다.
- ⑤ 충신, 효자, 열녀를 알리기 위해 간행된 것은 삼강행실도이다 (1434, 조선 세종 16).

17 - 쌍성총관부 수복

17.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다루가치가 왕을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선지(宣旨)라 칭하고, 짐(朕)이라 칭하고, 사(赦)라 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람합니까?”라고 하였다. …… 이에 선지를 왕지(王旨)로, 짐을 고(孤)로, 사를 유(宥)로, 주(奏)를 정(呈)으로 고쳤다.

(나) 왕이 시해당하자 태후가 종실에서 [후사를] 골라 세우고자 하니, 시중 이인임이 백관을 거느리고 우왕을 세웠다.

-『고려사』-

- ①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하였다.
- ② 유인우, 이자춘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 ③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④ 최우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 ⑤ 명의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정답> ②

(가)에 '다루가치*가 왕을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선지(宣旨)라 칭하고, 짐(朕)이라 칭하고, 사(赦)라 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람합니까?'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선지를 왕지(王旨)로, 짐을 고(孤)로, 사를 유(宥)로, 주(奏)를 정(呈)으로 고쳤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몽골의 간섭으로 관제는 물론 칭호까지 격하된 사실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충렬왕 원년인 1275년에 있었던 일이다.

*다루가치: 몽골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설치한 감찰관[통치관]
(나)에는 '왕이 시해당하자 태후가 종실에서 [후사를] 골라 세우고자 하니, 시중 이인임(?~1388)이 백관을 거느리고 우왕을 세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공민왕(재위 1351-1374, 제31대)이 피살되고 우왕(재위 1374-1388, 제32대)이 즉위한 1374년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유인우(?~1364), 이자춘(1315~1360)*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한 것은 고려 공민왕 5년인 1356년의 일이다.

*이자춘: 태조 이성계(1335~1408)의 아버지(부친)

오답 해설>

- ①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한 것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의 일이다.
- ③ 정중부(1106~1179)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것은 고려 의종 24년인 1170년의 일이다(무신 정변).
- ④ 최우(?~1249)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한 것은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
- ⑤ 명의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이 추진된 것은 고려 우왕 14년인 1388년의 일이다(위화도 회군 발생).

18 - 조선 세종 대의 사실

18.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왕이 말하였다. “장영실은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명하고 뛰어나 자격루를 만들었다. 이것은 만대에 이어 전할 만한 기물로 그 공이 작지 아니하니 호군의 관직을 더해 주고자 한다.” 황희가 “장영실에게만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 ①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되었다.
- ② 훈련 교범인 무예도보통지가 간행되었다.
- ③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 ④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 ⑤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정답> ⑤

'왕이 말하였다. 장영실(1390년경~?)은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명하고 뛰어나 자격루를 만들었다. 이것은 만대에 이어 전할 만한 기물로 그 공이 작지 아니하니 호군의 관직을 더해 주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황희가, 장영실에게만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왕'은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재위 1418-1450)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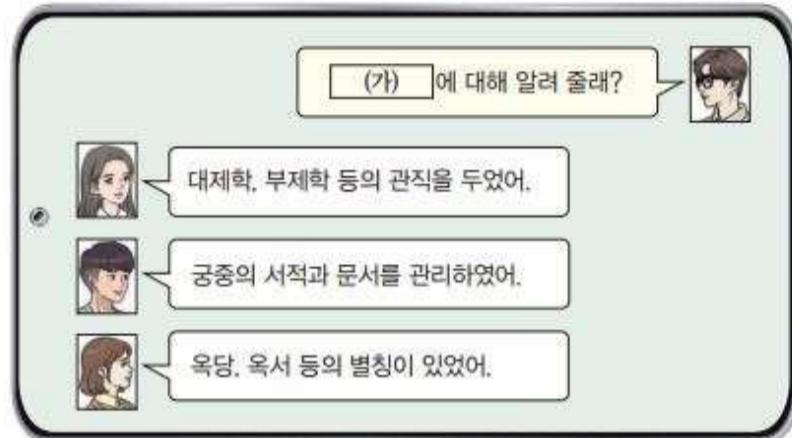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이 편찬된 것은 세종 11년인 1429년의 일이다. 정초, 변효문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하였으며, 관찬(官撰)으로 간행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된 것은 태종 대의 일이다 (1403, 태종 3).
- ② 훈련[무예] 교범인 무예도보통지가 간행된 것은 정조 대의 일이다(1790, 정조 14). 규장각 검서관인 이덕무와 박제가가 장용영 소속 장교 백동수 등과 함께 편찬하였다.
- ③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된 것은 선조 대의 일이다 (1593, 선조 26).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참고하여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으며, 대부분 급료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상비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 ④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된 것은 광해군 대의 일이다(1610, 광해군 2). 허준(1539~1615)이 집필하였으며, 광해군 5년인 1613년에 내의원에서 이를 출간하였다.

19 - 홍문관

19.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 ②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 ③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화되었다.
- ④ 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 ⑤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결하였다.

정답> ②

'(가)에 대해 알려 줄래?'라는 질문에, '대제학, 부제학 등의 관직을 두었어', '궁중의 서적과 문서를 관리하였어', '옥당, 옥서 등의 별칭이 있었어'라는 대답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조선의 홍문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홍문관은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참고로 홍문관은 성종 9년인 1478년에 새롭게 설치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던 조선의 기구는 한성부이다.
- ③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화된 것은 비변사이다(1555, 명종 10).
- ④ 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기구는 승정원이다.
- ⑤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결한 것은 의금부이다

20 - 향교

20. (가) 교육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조선 시대 지방 교육 기관인 (가)입니다. 대부분 지방 관아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으며 제향 공간인 대성전, 강학 공간인 명륜당,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① 전문 강좌인 7재를 운영하였다.
- ② 풍기 군수 주세봉이 처음 세웠다.
- ③ 생원과 진사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였다.
- ④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 ⑤ 유학을 비롯하여 윤학, 서학, 산학을 교육하였다.

정답> ④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조선 시대 지방 교육 기관인 (가)입니다. 대부분 지방 관아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으며 제향 공간인 대성전, 강학 공간인 명륜당,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조선의 향교임을 알 수 있다.

중앙에서 (향교에) 교수나 훈도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전문 강좌인 7재를 운영한 교육 기관은 고려의 국자감이다 (1109, 고려 예종 4).
- ② 풍기 군수 주세봉(1495~1554)이 처음 세운 교육 기관은 조선의 서원이다[백운동 서원, 1543(조선 중종 38)].
- ③ 생원과 진사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한 교육 기관은 조선의 성균관이다.
- ④ 유학을 비롯하여 윤학, 서학, 산학을 교육한 교육 기관은 고려의 국자감이다.

21 - 현량과 시행

21.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항과 봉은 정씨의 소생이다. 왕은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씨,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 여기고, 밤에 엄씨, 정씨를 대궐 뜰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 치고 짓밟다가 항과 봉을 불러 엄씨, 정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라고 하였다. 왕은 대비에게 "어찌하여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라고 하며 불손한 말을 많이 하였다.

(나) 이덕용이 진술하였다. "윤임과는 항상 대윤, 소윤이라는 말 때문에 화가 미칠까 우려하여 서로 경계하였을 뿐이었고, 모략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윤임이 신에게 '주상이 전혀 소생할 기미가 없으니 만약 대군이 왕위를 계승하여 윤원로가 뜻을 얻게 되면 우리 집안은 멸족당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①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었다.
- ②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 ③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 현량과가 시행되었다.
- ④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처형되었다.
- ⑤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정답> ③

(가)에 '항과 봉은 정씨의 소생이다. 왕은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씨,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 여기고, 밤에 엄씨, 정씨를 대궐 뜰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 치고 짓밟다가 항과 봉을 불러 엄씨, 정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은 대비에게 어찌하여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라고 하며 불손한 말을 많이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의 제10대 왕인 연산군(재위 1494-1506)이 성종의 후궁이던 엄씨와 정씨를 장살하고, 인수 대비에게 불손하게 대한 사실을 기록한 내용으로 1504년(연산군 10)에 있었던 일이다.

(나)에는 '이덕용이 진술하였다. 윤임과는 항상 대윤, 소윤이라는 말 때문에 화가 미칠까 우려하여 서로 경계하였을 뿐이었고, 모략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윤임이 신에게 주상이 전혀 소생할 기미가 없으니 만약 대군이 왕위를 계승하여 윤원로가 뜻을 얻게 되면 우리 집안은 멸족당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의 제12대 왕인 인종(재위 1544-1545)이 즉위한지 9개월 만에 죽고(1545년 음력 7월에 사망), 명종이 제13대 왕으로 즉위한 1545년(명종 즉위년)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다.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 현량과가 시행된 것은 중종 14년인 1519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된 것은 경신환국 때의 일이다(1680, 숙종 6).
- ②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난 것은 선조 22년인 1589년의 일이다.
- ④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처형된 것은 무오사화 때의 일이다(1498, 연산군 4).
- ⑤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된 것은 영조 18년인 1742년의 일이다.

22 - 조선 성종(경국대전 반포)

22.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국악 콘서트
선릉에서 만나는 조선의 예와 악

(가)의 재위 기간에 예악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편찬된 국조오례의와 악학궤범의 의미를 살펴보는 무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부 특별 강연: 국조오례의를 통해 본 조선의 의례
2부 주제 공연: 악학궤범을 바탕으로 재현한 처용무

■ 일시: 2021년 ○○월 ○○일 ○○시
■ 장소: 선릉 정자각 앞 특설 무대

- ①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법화로 사용하였다.
- ② 법령을 정비하여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 ③ 구황찰요를 간행하여 기근에 대비하였다.
- ④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 ⑤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여 역대 문물을 정리하였다.

정답> ②

'선릉에서 만나는 조선의 예와 악'이라는 제목 아래 '(가)의 재위 기간에 예악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편찬된 국조오례의와 악학궤범의 의미를 살펴보는 무대를 준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부 특별 강연으로 '국조오례의를 통해 본 조선의 의례'가, 제2부 주제 공연으로 '악학궤범을 바탕으로 재현한 처용무'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국조오례의는 조선 성종 5년인 1474년에 편찬되었고, 악학궤범 역시 성종 24년인 1493년에 간행되었으므로, 자료 속 '(가)'는 조선의 제9대 왕인 성종(재위 1469~1494)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선릉은 성종과 성종의 계비 정현 왕후 윤씨의 무덤이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에 소재).

조선 세조 때 착수한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반포한 것은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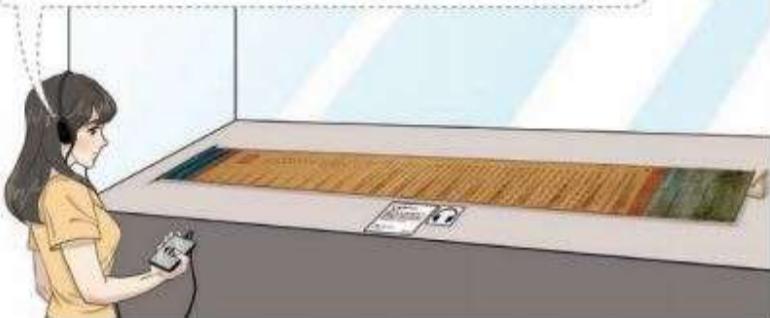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법화로 사용한 것은 숙종 4년인 1678년의 일이다(전국으로 유통되기 시작).
- ③ 구황찰요를 간행하여 기근에 대비한 것은 명종 9년인 1554년의 일이다.
- ④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한 것은 정조 5년인 1781년의 일이다.
- ⑤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여 역대 문물을 정리한 것은 영조 46년인 1770년의 일이다.

23 - 임진왜란

23. 밑줄 그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이 자료는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김시민을 선무 2등 공신으로 책봉한 교서입니다. 그는 진주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 왜군의 보급로를 끊었으며 전라도의 곡창 지대를 지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①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 ②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 ③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 ④ 조현이 금산에서 의병을 이끌고 활약하였다.
- ⑤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익진을 펼쳐 승리하였다.

정답> ①

'이 자료는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김시민을 선무 2등 공신으로 책봉한 교서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진주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 왜군의 보급로를 끊었으며 전라도의 곡창 지대를 지키는 데 기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김시민(1554~1592)'과 '진주성 전투(제1차)*'가 나온 것으로 보아 밑줄 그은 '이 전쟁'은 임진왜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592.4~1598.11, 음력).

*제1차 진주성 전투는 1592년 10월에, 제2차 진주성 전투는 이듬해인 1593년 6월에 벌어졌다.

(조선 인조 때의 명장) 임경업(1594~1646)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한 것은 병자호란 때의 일이다(1636, 인조 14). 백마산성은 평안북도 의주군 백마산에 있던 성이다. 참고로 임경업은 병자호란 이후 명에 망명하여 청을 치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조선에 압송되어 옥사하였다.

오답 해설>

- ②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것은 1593년 1월의 일이다(평양성 탈환).
- ③ 권율(1537~1599)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한 것은 1593년 2월의 일이다(행주 대첩).
- ④ 조현(1544~1592)이 (충남) 금산에서 의병을 이끌고 활약한 것은 1592년 7~8월의 일이다(금산 전투).
- ⑤ 이순신(1545~1598)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익진을 펼쳐 승리한 것은 1592년 7월의 일이다(한산도 대첩).

24 - 인왕제색도

24.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1점]



정답> ③

'경재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강산'이라는 제목 아래 '경재 정선(1676~1756)은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의 그림을 온라인으로 만나 보세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가) 왼쪽에 정선의 '경교명승첩'*에 수록된 한양진경 두 작품[왼쪽부터 차례로. 양화환도(1740, 영조 16)와 압구정(1741, 영조 17)]이 제시되어 있다.

*경교명승첩: 한양 근교와 한강변의 명승명소를 그린 진경 산수화와 인물화로 구성된 정선의 그림첩이다. 총 33장의 그림 중 20여 점이 한강과 한양 일대를 주제로 삼고 있는데, 정선은 그의 나이 65세가 되던 무렵(1740년)부터 이곳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2017년에 보물 제1950호로 지정되었다.

주어진 선지 중 ③이 정선의 인왕제색도이다. 인왕제색도는 '금강전도'와 함께 정선의 대표작으로 꼽힌다(1751년작, 황혼에 접어든 일흔 여섯의 나이에 완성).

오답 해설>

① 표암 강세황(1713~1791)의 영통동구도이다(송도기행첩 중의 한 점)(1757, 영조 33). 산과 바위에서 서양화 기법인 원근법과 명암법(음영법)이 반영되었다.

② 단원 김홍집(1745~1806)의 송석원시사야연도이다(1791, 정조 15). 말 그대로 송석원의 시회(詩會)를 묘사한 그림이다.

④ 조선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 대군(1418~1453)이 꿈에서 본 이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이다(1447, 세종 29).

25 - 선무군관포 징수(균역법)

25. 밑줄 그은 '방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국왕께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하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감면으로 인한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 ①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 ②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 ③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 ④ 수신전, 흘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 ⑤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하였다.

정답> ①

왼쪽 말풍선에 '국왕께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하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감면으로 인한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취해진 조치는 곧 균역법을 가리키며(1750, 영조 26), 밑줄 그은 방책이라는 것도 균역법 실시에 따른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임을 알 수 있다.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한 것은 방책 중의 하나이다. 그외 1결당 쌀 2두의 결작 징수, 해세·어장세·선박세 징수 등이 있다.

오답 해설>

②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한 것은 공법 중 연분9등법이다(1444, 세종 26).

③ (국상 을파소의 건의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시행한 것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의 일이다(194, 고국천왕 16).

④ 수신전, 흘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한 것은 직전법 시행 때의 일이다(1466, 세조 12).

⑤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한 것은 고려 광종 대이다(963, 고려 광종 14).

24번 오답 해설>

⑤ 지우재 정수영(1742~1831)이 그린 한강임진강유람사경도권(漢江臨津江遊覽寫景圖卷)*의 일부이다(1796~1797). 이 그림은 길이가 거의 16m에 이른다. 정수영은 1796년 여름에 한강에서 출발하여 이듬해 가을 금강산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유람하였는데, 한 번의 여정을 이어 그런 것이 아니라 유람 중에 만난 인상적인 경치 26장면을 때로는 짤막짤막하게 여러 번, 때로는 긴 화면으로 자유롭게 그렸다. *한임강명승도권(漢臨江名勝圖卷)이라고도 한다.

26 - 조선 후기의 모습

26.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2점]

비변사에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삼남에서 특산물로 종이를
바치는 공인이 청원하기를 ‘승려들의 숫자가 줄어 종이의 양이
부족한 데도 각 지방의 군영과 관아에서 먼저 가져갑니다. 이로 인해
중앙에 공물로 납부할 종이가 부족해 공인이 처벌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송상들이 각 사찰에 출입하여 종이를 몰래 사들여
책문에 가서 시장을 만드는 행위를 엄금해 은밀히 국경을 넘는
폐단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 ①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 ② 솔빈부의 특산품인 말을 수입하는 상인
- ③ 여러 장시를 돌며 물품을 판매하는 보부상
- ④ 저잣거리에서 한글 소설을 읽어 주는 전기수
- ⑤ 채소,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정답> ②

'비변사에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삼남에서 특산물로 종이를 바치는 공인이 청원하기를, 승려들의 숫자가 줄어 종이의 양이 부족한 데도 각 지방의 군영과 관아에서 먼저 가져갑니다. 이로 인해 중앙에 공물로 납부할 종이가 부족해 공인이 처벌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송상들이 각 사찰에 출입하여 종이를 몰래 사들여 책문*에 가서 시장을 만드는 행위를 엄금해 은밀히 국경을 넘는 폐단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공인'과 '송상'이라는 말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조선 후기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책문(柵門): 조선 후기 청(淸)과의 밀무역을 행하던 지명이다(책문 후시). 만주의 구련성(九連城)과 봉황성(鳳凰城)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중강 후시(中江後市)가 혁파될 무렵인 현종 원년(1660)부터 청과 조선의 사신들이 내왕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요동의 차호(車戶)와 의주·개성의 상인들 사이에 통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솔빈부는 발해의 지방 행정 구역 중 하나이다(남북국 시대). 특산물인 말이 유명하였다.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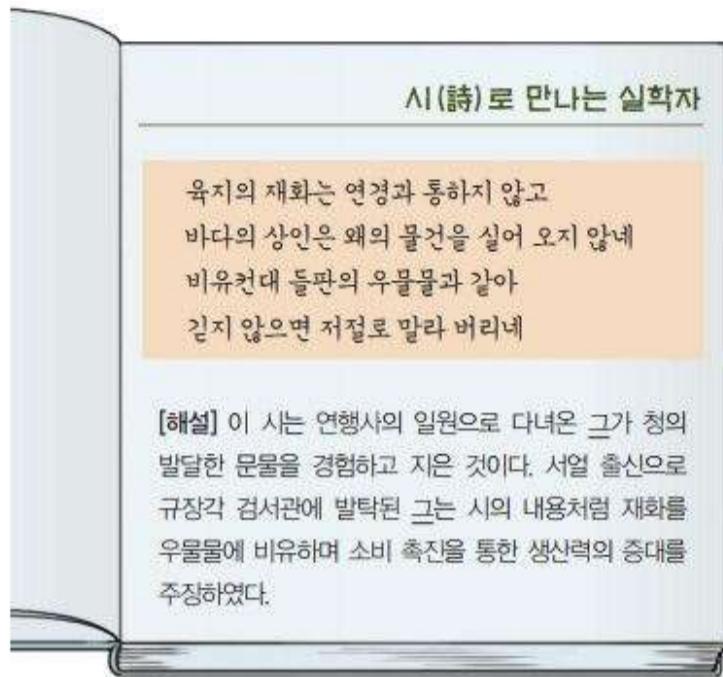
- ① 중인이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활동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③ 보부상이 여러 장시를 돌며 물품을 판매한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④ 전기수가 저잣거리*에서 한글 소설을 읽어 준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저잣거리: 가게가 죽 늘어서 있는 거리(시장 거리)

- ⑤ 농민이 채소,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한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

27 - 초정 박제가

27.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 ②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 ③ 북학의에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하였다.
- ④ 열하일기에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⑤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였다.

정답> ③

'시(詩)로 만나는 실학자'라는 제목 아래 '육지의 재화는 연경과 통하지 않고/바다의 상인은 왜의 물건을 실어 오지 않네/비유컨대 들판의 우물물과 같아/길지 않으면 저절로 말라 버리네'라는 시가 제시되어 있다. 해설로 '이 시는 연행사의 일원으로 다녀온 그가 청의 발달된 문물을 경험하고 지은 것이다.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발탁된 그는 시의 내용처럼 재화를 우물물에 비유하여 소비 촉진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를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그'는 초정 박제가(1750~1805)임을 알 수 있다.

박제가는 자신의 저서 『북학의』에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하였다(1778, 정조 2).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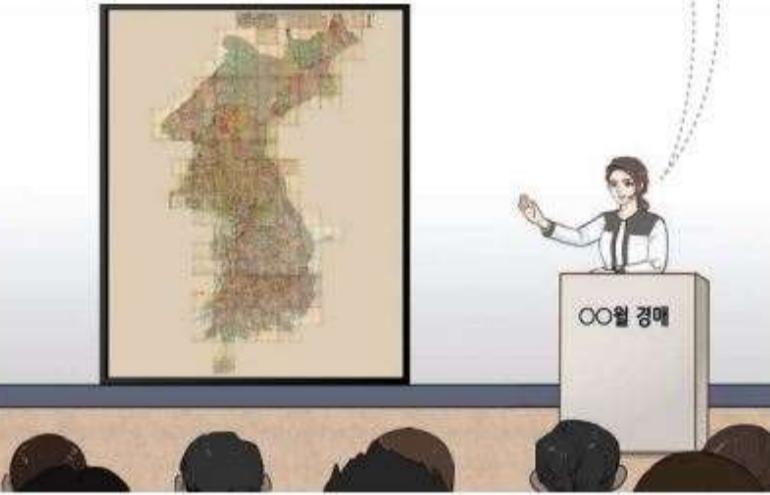
- ①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한 인물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 정약용이 거중기를 설계한 것은 정조 13년인 1789년의 일이다.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데 사용하였고, 특히 1794년부터 쌓기 시작한 수월성에 거중기가 동원되었다(~1796).
- ②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한 인물은 하곡 정제두(1649~1736)이다.
- ④ 열하일기에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한 인물은 연암 박지원(1737~1805)이다. 박지원은 정조 4년인 1780년에 청 건륭제의 칠순연(七旬宴)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행하는 삼종형 박명원을 수행하여 청 황제의 피서지인 열하까지 여행하고 돌아온 일이 있는데 이때의 일들을 소상하게 담은 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일종의 여행기인 '연행일기').
- ⑤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한 인물은 농암 유수원(1694~1755)이다(1729~1737 집필 추정).

28 - 대동여지도

2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번 경매 물건은 김정호가 당시 조선의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하여 만든 (가)입니다. 10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여 거리를 알 수 있게 하였고, 개개의 산보다 산줄기를 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군현별로 다른 색이 칠해진 채색본으로는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 ① 최초로 100리 척이 적용되었다.
- ② 전체 22첩의 목판본으로 되어 있다.
- ③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最古)의 지도이다.
- ④ 각 지방의 연혁, 산천, 풍속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 ⑤ 전국의 지리 정보에 주요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병기하였다.

정답> ②

'이번 경매 물건은 (고산자) 김정호(1804~1866)가 당시 조선의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하여 만든 (가)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0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여 거리를 알 수 있게 하였고, 개개의 산보다 산줄기를 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군현별로 다른 색이 칠해진 채색본으로는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대동여지도임을 알 수 있다(1861, 철종 12).

대동여지도는 총 22첩의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분첩절첩 방식으로 제작).

오답 해설>

- ① 최초의 100리 척이 적용된 지도는 정상기(1678~1752)의 동국지도이다(1740년대).
- ③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最古)의 지도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다(1402. 태종 2).
- ④ 각 지방의 연혁, 산천, 풍속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는 것은 청담 이중환(1690~1752)의 택리지이다(1751, 영조 27). 택리지는 인문지리서이다. 참고로 유사한 성격의 지리서로 동국여지승람도 들 수 있다. 성종 때 노사신, 양성지 등이 팔도지리지 등을 참고하여 처음 완성하였으며(1481, 성종 12), 이후 증보되어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다시 편찬되었다(1530, 중종 25).
- ⑤ 전국의 지도 정보에 주요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병기한 지도는 김수홍(1602~1681)의 조선팔도고금총람도이다(1673, 현종 14).

29 - 전주 농민 봉기(임술 농민 봉기)

29. 밑줄 그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전주의 난민들이 경상 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난민들이 이렇게 극도에 이른 경우는 없었는데, 평소에 잘 위무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박규수를 경상도 안핵사로 내려 보내 사태를 수습토록 하라.



- ① 청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 ②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 ④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 ⑤ 함경도와 황해도에 방곡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 '전주의 난민들이 경상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합니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난민들이 이렇게 극도에 이른 경우는 없었는데, 평소에 잘 위무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박규수를 경상도 안핵사로 내려 보내 사태를 수습토록 하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사건'은 조선 철종 13년인 1862년 2월에 발생한 전주 농민 봉기임을 알 수 있다. 경상도 안핵사로 파견된 환재 박규수(1807~1876)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청의 군대에 의해 진압된 사건으로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들 수 있다(각 1882/1884).
- ③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난 사건은 홍경래의 난이다(1811, 순조 11).
- ④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된 사건은 동학 농민운동의 제2차 봉기 시이다(1894.9).
- ⑤ (1889년과 1890년에) 함경도와 황해도에 방곡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일본으로의 과도한 미곡 수출[반출] 때문이었다. 방곡령 선포 항목은 조일 통상 장정에서 규정되었다(1883.7).

30 - 흥선 대원군

30.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왕이 말하였다. “요즘에 서원마다 사무를 자손들이 주관하고 봉당을 각기 주장하니, 이로 인한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의 분부대로 서원을 철폐하고 신주를 땅에 묻어 버리는 등의 절차를 거행하도록 전국에 알려라.”
- (가)에게 군국사무를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그는 궐내에서 거처하며 5군영의 군사 제도를 복구하고 군량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리고 난병(亂兵)들을 물러가게 하고 대사면령을 내렸다.

- ①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② 나선 정벌을 위해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 ③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④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
- ⑤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정답> ④

위의 자료에 '왕이 말하였다. 요즘에 서원마다 사무를 자손들이 주관하고 봉당을 각기 주장하니, 이로 인한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가)의 분부대로 서원을 철폐하고 신주를 땅에 묻어 버리는 등의 절차를 거행하도록 전국에 알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서원 철폐와 관련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자료에는 '(가)에게 군국사무를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그는 궐내에서 거처하며 5군영의 군사 제도를 복구하고 군량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리고 난병(亂兵)들을 물러가게 하고 대사면령을 내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임오군란('난병')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의 발발로 재집권하게 된 흥선 대원군(1820~1898)과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써 위의 자료 속 (가)는 흥선 대원군이고, 흥선 대원군이 시행한 서원 철폐와 관련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1864(고종 원년), 참고로 서원 철폐는 영조 대도 행해짐].

흥선 대원군은 신미양요 직후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1871, 고종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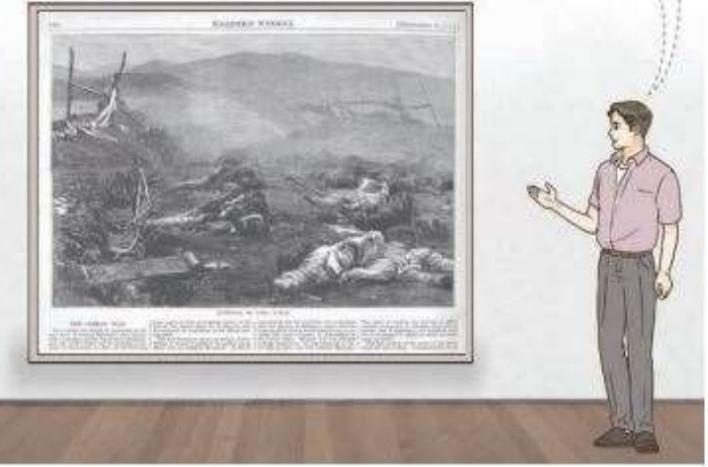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한 인물은 조선의 제22대 왕인 정조(재위 1776~1800)이다(1793, 정조 17).
- ② 나선 정벌을 위해 조총 부대를 파견한 인물은 조선의 제17대 왕인 효종(재위 1649~1659)이다[각 1654(변급)/1658(신류) 두 차례].
- ③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한 인물은 조선의 제21대 왕인 영조(재위 1724~1776)이다(1746, 영조 22).
- ⑤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건립한 것은 독립 협회(서재필 주도)이다(1897.11).

31 - 신미양요

31. 밑줄 그은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이것은 어재연이 이끈 조선군 수비대가 로저스 제독의 함대에 맞서 광성보에서 격렬히 항전한 사건을 보도한 당시의 미국 신문 기사입니다.



1866	1868	1876	1882	1884	1894
(가)	(나)	(다)	(라)	(마)	
병인 박해	오페르트 도굴 사건	강화도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	한성 조약	청일 전쟁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정답> ②

'이것은 어재연(1823~1871)이 이끈 조선군 수비대가 로저스 제독의 함대에 맞서 광성보에서 격렬히 항전한 사건을 보도한 당시의 미국 신문 기사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신미양요 때의 광성진[광성보] 전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71.5).

제시된 연표에서는 (나) 시기에 해당한다.

32 - 통리기무아문과 12사 설치

32.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수신사 김기수가 나와 엎드리니 왕이 말하였다. “전선, 화륜과 농기계에 관하여 들은 것은 없는가? 저 나라에서 이 세 가지 일을 제일 급하게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하던가?” 김기수가 “과연 그러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나) 어윤중이 동래부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왕에게서 받은 봉해진 서신을 열어보니, “일본 조정의 논의와 정국의 형세, 풍속·인물·교병·통상 등의 대략을 염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너는 일본으로 건너가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들판에 구애받지 말고 낱낱이 탐지해서 별도의 문서로 조용히 보고하라.”라는 내용이었다.

- ① 미국에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 ② 통리기무아문과 12사가 설치되었다.
- ③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무단 침입하였다.
- ④ 교원 양성을 위해 한성 사범 학교가 설립되었다.
- ⑤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여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었다.

정답> ②

(가)에 '수신사 김기수가 나와 엎드리니 왕이 말하였다. 전선, 화륜과 농기계에 관하여 들은 것은 없는가? 저 나라에서 이 세 가지 일을 제일 급하게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하던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김기수가, 과연 그러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김기수가 제1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와 복명[보고]한 일과 관련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1876.4~6). (나)에는 '어윤중이 동래부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왕에게서 받은 봉해진 서신을 열어보니, 일본 조정의 논의와 정국의 형세, 풍속·인물·교병·통상 등의 대략을 염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너는 일본으로 건너가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들판에 구애받지 말고 낱낱이 탐지하여 별도의 문서로 조용히 보고하라라는 내용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어윤중이 동래부 암행어사로 임명되어'라는 부분에서 주어진 자료는 (사실상의 제3차 수신사인) 조사 시찰단 파견과 관련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1881.4~윤7). 박정양, 어윤중, 조준영, 조병직, 민종묵, 심상학, 홍영식 등은 총 5인으로 1반(班)을 구성하여, 각 반별로 조사 대상을 정하여 최종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통리기무아문과 12사가 설치된 것은 고종 17년인 1880년 12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미국에 보빙사가 파견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 7월의 일이다(~1884.5).
- ③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무단 침입한 것은 고종 12년인 1875년 9월의 일이다.
- ④ 교원 양성을 위해 한성 사범 학교가 설립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4월의 일이다.
- ⑤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여 천주교 포교가 허용된 것은 고종 23년인 1886년 5월의 일이다(조불 수호 통상 조약).

33 - 교정청 설치

33.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 ②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 ③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되었다.
- ④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⑤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되었다.

정답> ①

왼쪽 그림에 '오늘 화약을 체결했으니 전주성에서 물러가시오'라는 말과 '알겠소. 폐정 개혁과 농민군의 신변 보장을 해주시오'라는 대답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그림에는 '어제 군국기무처에서 과거제를 폐지했다고 하네'라는 말과 '앞으로 인재 등용에 큰 변화가 있겠군'이라는 대답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왼쪽 그림은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체결된 전주 화약과 관련된 사실이고 (1894.5.8), 오른쪽 그림은 제1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사실임을 알 수 있다(1894.7~189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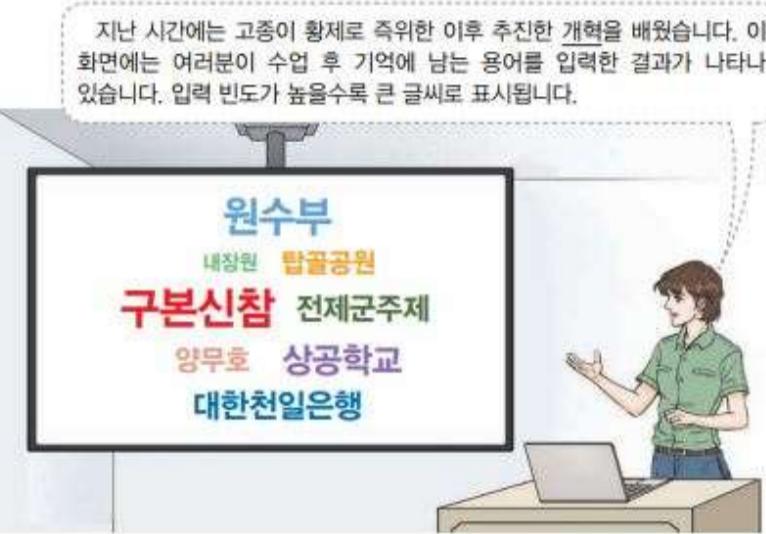
(자주적인 내정 개혁을 위해) 교정청이 설치된 것은 1894년 6월 11일의 일이다. 같은 해 6월 25일에 군국기무처가 설치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오답 해설>

- ② (독립 협회에 의해) 독립신문이 창간된 것은 1896년 4월의 일이다.
- ③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된 것은 1898년 1월의 일이다.
- ④ (청과 일본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것은 1895년 4월의 일이다.
- ⑤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된 것은 을미개혁 때의 일이다 (1895.8~1896.2).

34 - 광무개혁

34.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5군영에서 2영으로 군제를 개편하였다.
- ② 양전 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③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 ④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흥법 14조를 반포하였다.
- ⑤ 서양식 근대 교육 기관인 육영 공원을 설립하였다.

정답> ②

'지난 시간에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추진한 개혁을 배웠습니다. 이 화면에는 여러분이 수업 후 기억에 남는 용어를 입력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입력 빈도가 높을수록 큰 글씨로 표시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구본신참', '원수부', '대한천일은행', '상공학교', '전제군주제', '탑골공원', '양무호', '내장원'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개혁'은 광무개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97~1904). 참고로 '내장원'은 조선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청이고, '양무호'는 일본에서 도입한 최초의 기선식(汽船式) 근대 군함이다. 1903년 4월에 고종 황제로부터 양무호로 명명되었고, 같은 해 4월에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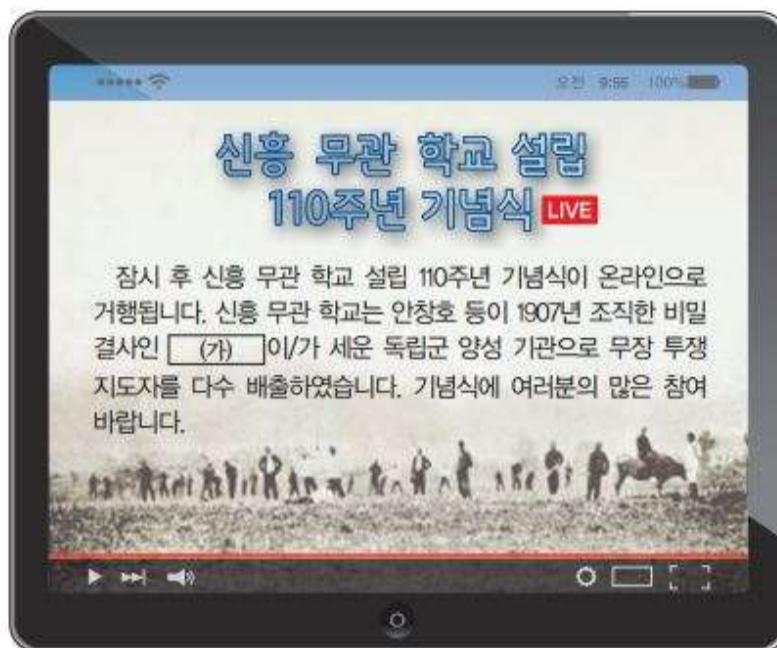
양전 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한 것은 광무개혁 때의 일이다(1899~1904).

오답 해설>

- ① 5군영에서 2영(무위영·장어영)으로 군제가 개편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11월의 일이다.
- ③ 박문국이 설치되어 한성순보가 발행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 10월의 일이다.
- ④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흥법 14조를 반포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1월의 일이다.
- ⑤ 서양식 근대 교육 기관인 육영 공원이 성립된 것은 고종 23년인 1886년 9월의 일이다.

35 - 신민회

35.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 ②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 ③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 ⑤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답> ⑤

'신흥 무관 학교 설립 110주년 기념식'이라는 제목 아래 '잠시 후 신흥 무관 학교 설립 110주년 기념식이 온라인으로 거행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신흥 무관 학교는 안창호 등이 1907년 조직한 비밀결사인 (가)이/가 세운 독립군 양성 기관으로 무장 투쟁 지도자를 다수 배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 속 '(가)'는 신민회임을 알 수 있다(1907.4). 신민회는 대성 학교(평양)와 오산 학교(평북 정주)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각 1908.9/1907.12).

오답 해설>

- 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단체는 조선어 학회이다(1933.10). 참고로 조선어 학회는 또 조선어표준어사정위원회를 두고 1935년부터 표준어를 사정하여 이듬해인 1936년 10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간행하였다.
- ②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한 단체는 의열단이다(1923.1).
- ③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동아일보이다(1931~1934).
- ④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1919.11).

36 - 국채 보상 운동

36. (가)에 들어갈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회사령 폐지에 영향을 받았다.
- ② 김광제 등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 ③ 색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④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하였다.
- ⑤ 중국, 프랑스 등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정답> ②

'신문으로 보는 경제 구국 운동'이라는 제목 아래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전개된 (가) 당시 15전부터 10원까지 성금을 보낸 50여 명의 명단을 보도한 대한매일신보 기사'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에는 대구에서부터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국채 보상 운동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국채 보상 운동은 김광제(1866~1920), 서상돈(1850~1913) 등의 발의로 (대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1907.2~1908.7).

오답 해설>

- ① (허가제) 회사령 폐지에 영향을 받은 민족 운동은 물산 장려 운동이다(1920.8).
- ③ 색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민족 운동은 소년 운동이다(1923.5).
- ④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한 민족 운동은 6·10 만세 운동이다(1926.6).
- ⑤ 중국, 프랑스 등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은 민족 운동은 원산 총파업이다(1929.1~4).

37 - 헤이그 특사 파견

37.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군사·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보호·감리의 조처를 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 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거하였다.
- ②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 ③ 상권 수호를 위해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되었다.
- ④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하였다.
- ⑤ 일본 군함이 관세 문제로 두모포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정답> ②

제2조로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군사·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보호·감리의 조처를 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조약은 러시아가 일제의 한국에서의 독점적 우위권을 인정한 포츠머스 조약임을 알 수 있다(1905.9.5).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가 파견된 것은 1907년 4월의 일이다(회의가 개최된 것은 6월).

오답 해설>

- 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거한 것은 1885년 4월의 일이다 (~1897.2).
- ③ 상권 수호를 위해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된 것은 1898년 7월의 일이다.
- ④ 유생 출신 의암 유인석(1842~1915)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한 것은 1896년 2월의 일이다(1896.2.17).
- ⑤ 일본 군함이 관세 문제로 두모포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은 1878년 12월의 일이다[부산 두모포 (해관) 수세 사건]. 관세 자주권과 관련된 사건으로 일본군 수병들이 동래부사를 압박하면서 일본인 상인들에게 수세를 거두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38 - 구당 유길준

38.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였다.
- ② 갑신정변 실패 직후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 ③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 협회를 창립하였다.
- ④ 배재 학당을 설립하여 근대 교육을 보급하였다.
- ⑤ 참정대신 자격으로 관민 공동회에서 연설하였다.

정답> ①

'이 그림은 (가)이/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 쓴 노동야학독본에 실린 삽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처음으로 일본과 미국에 유학하고 서유견문을 집필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구당 유길준(1856~1914)임을 알 수 있다(서유견문은 1895년에 간행, 노동야학독본은 1908년 편찬).

유길준은 1885년 6월에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한 바 있다.

오답 해설>

- ② 갑신정변 실패 직후 일본으로 망명한 인물로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변수 등 9명이다(급진 개화파). 유길준은 갑신정변 당시 미국에서 국비유학생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덤머 아카데미(Dummer Academy)에 다니고 있었다.
- ③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 협회를 창립한 인물은 서재필(1864~1951)이다(1896.7).
- ④ (근대식 중등 교육 기관인) 배재 학당을 설립하여 근대 교육을 보급한 인물은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1858~1902)이다(1885.8).
- ⑤ 참정 대신 자격으로 관민 공동회에서 연설한 인물은 죽천 박정양(1841~1905)이다(1898.10).

39 - (조선) 민립 대학 설립 운동

39. 다음 기사에 보도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역사 신문
제스스호 0000년 00월 00일

민대총회(民大總會) 개최, 460여 명의 대표 참석

▲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발기 총회 조선인도 생존을 위해서는 대학의 설립을 빼고는 다른 길이 없도다. 만천하 동포에게 민립 대학의 설립을 제창하노니, 자매형제는 모두 와서 성원하라.'라는 요지의 발기 취지서를 발표하였다.

- ①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 ② 사립 학교령 공포의 계기가 되었다.
- ③ 이상재 등이 모금 활동을 주도하였다.
- ④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 ⑤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

정답> ③

'민대총회(民大總會) 개최, 460여 명의 대표 참석'이라는 제목 아래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발기 총회(민대총회)가 오후 1시부터 종로 중앙청년회관에서 열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총회에서는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제 우리 조선인도 생존을 위해서는 대학의 설립을 빼고는 다른 길이 없도다. 만천하 동포에게 민립 대학의 설립을 제창하노니, 자매형제는 모두 와서 성원하라라는 요지의 발기 취지서를 발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1923년 3월에 열린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발기[창립] 총회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는 1922년 11월에 결성).

(조선) 민립 대학을 설립하고자 월남 이상재(1850~1927), 강석한규설(1848~1930) 등이 모금 활동을 주도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준 민족 운동은 3·1 운동이다(1919).
- ② 사립 학교령이 공포된 것은 1908년 8월(대한 제국 칙령 제62호,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 한국인 주도의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일종의 애국 계몽 운동 억압).
- ④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한 민족 운동은 국체 보상 운동이다(1907.2~1908.7).
- ⑤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통문이 발표된 것은 1898년 9월의 일이다(1898.9.1).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은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300여 명의 여성들이 찬동해 이루어졌다(찬양회).

40 - 연해주의 민족 운동

40. 밑줄 그은 '이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 운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승무 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 ② 권업회를 창립하여 항일 신문을 발행하였다.
- ③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④ 임병찬이 주도하여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⑤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였다.

정답> ②

'이것은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조형물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9세기 후반 한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건설된 신한촌은 이 지역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었지만, 1937년 스탈린이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기면서 해체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지역'은 연해주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권업회를 창립하여 (기관지이자) 항일 신문(인 권업신문)을 발행한 지역은 연해주이다(각 1911.12/1912.4).

오답 해설>

- ① 승무 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한 지역은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메리다 지역이다(1910.11). 지역회 한인 회장 이근영(?~?)의 주도로 수십 명의 한인 청년을 모아 사관(士官)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 ③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한 지역은 간도[북간도 용정]이다(1906.8).
- ④ 임병찬이 주도하여 독립 의군부를 조직한 지역은 전라남도이다(1912.9). 1914년에 본거지를 서울로 옮기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하는 한편, 명칭을 대한 독립 의군부로 고쳤다.
- ⑤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 선언서를 작성한 지역은 일본 도쿄이다(1919.2). '재일본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 대표 11인'의 명의로 제시되었다.

41 - 왕산 허위와 심산 김창숙

41.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선비 정신으로 나라를 지킨 독립운동가

허위(1855 ~ 1908)

- 단발령 반대 의병에 참여
- 평리원 재판장 역임
- (가)
-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김창숙(1879 ~ 1962)

- 을사늑약 체결 반대 상소
- 파리 장서 운동 주도
- (나)
-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보기〉

ㄱ. (가) – 관군에게 체포되어 쓰시마섬에서 순국
ㄴ. (가) –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 작전 전개
ㄷ. (나) –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통사 저술
ㄹ. (나) –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거 지원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선비 정신으로 나라를 지킨 독립운동가'라는 제목 아래 왕산 허위(1855~1908)와 심산 김창숙(1879~1962)이 제시되어 있다. 이어 허위는 '단발령 반대 의병에 참여', '평리원 재판장 역임', '(가)',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가, 김창숙의 경우는 '을사늑약 체결 반대 상소', '파리 장서 운동* 주도', '(나)',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가 이력으로 제시되어 있다.

*파리 장서 운동: 3·1 운동 직후 137명의 유림 대표가 한국 독립 청원서를 파리 강화 회의에 보낸 일종의 독립 청원 운동이다. 심산 김창숙이 짚신으로 엮어서 상하이 임시 정부로 가져갔고, 임시 정부에서는 다시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한문 원본과 같이 3천부씩이나 인쇄하여 파리 강화 회의는 물론 중국, 그리고 국내 각지에 배포하였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유림들이 체포되고 투옥되었다.

ㄴ.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한 인물은 왕산 허위이다(1908.1). 당시 허위는 군사장이었다.

ㄹ.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거를 지원한 인물은 심산 김창숙이다(1926.12). 김창숙은 김구에게서 추천받은 나석주(1892~1926)를 중국 천진에서 만나 폭탄과 권총 등의 무기를 전해주면서 '잠자고 있는 조선의 민족혼'을 깨워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답 해설>

- ㄱ. 관군에게 체포되어 쓰시마섬에서 순국한 인물은 면암 최익현(1833~1906)이다(1907.11).
- ㄷ.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통사를 저술한 인물은 백암 박은식(1859~1925)이다(1915.6).

42 - 1910~1920년대 일제 법령

42. (가)~(다)를 공포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가)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며,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고쳐 보통 경찰관에 의한 경찰 제도로 대신할 것이다. 또한 복제를 개정하여 일반 관리와 교원의 제복과 대검(帶劍)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도 고려한다.

(나) 제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 구역 안의 다음 각호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

제2조 즉결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취조한 후 즉시 언도해야 한다.

(다) 제1조 치안 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 유예 언도가 있었을 경우 또는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 관찰 심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호 관찰에 부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가출옥을 허락받았을 경우도 역시 같다.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가) - (나)

정답> ③

(가)에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또한 복제를 개정하여 일반 관리와 교원의 제복과 대검(帶劍)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도 고려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3·1 운동 결과 새로운 총독(제3대)으로 부임한 해군대장 출신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밝힌 '시정 방침 훈시'이다(그중 조선 총독부 관제 개정의 취지)(1919.9).

(나)의 제1조에는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 구역 안의 다음 각호의 범죄를 즉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2조에는 '즉결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취조한 후 즉시 언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한일 병탄 직후인 1910년 12월, 제령 제10호로 제정된 '범죄즉결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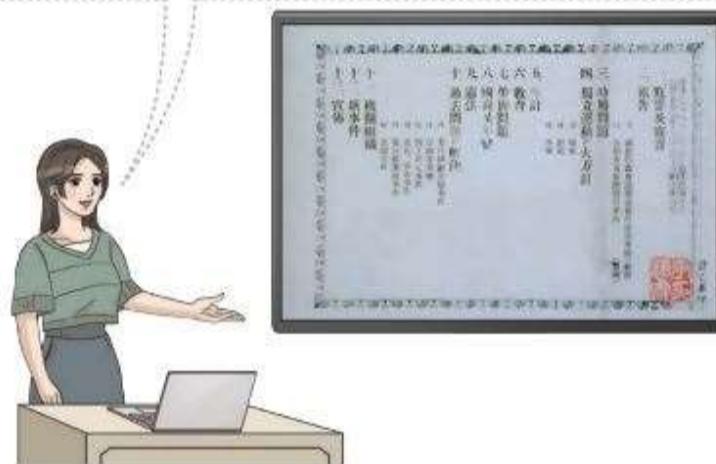
(다)의 제1조에는 '치안 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 유예 언도가 있었을 경우 또는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 관찰 심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호 관찰에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가출옥을 허락받았을 경우도 역시 같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다)'는 1936년 12월에 제정된 조선 사상법 보호 관찰령(조선 총독부 제령 제16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을 공포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가)-(다)'가 된다.

43 - 국민 대표 회의

43. 밑줄 그은 '회의'가 개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이 자료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개최된 회의의 의사일정입니다. 국내외 각지에서 온 대표들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창조파와 개조파 등으로 나뉘어져 격론을 벌였습니다.



1919	1925	1931	1935	1940	1945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박은식 대통령 취임	한인 애국단 조직	한국 국민당 창당	김구 주석 취임	8·15 광복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①

'이 자료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개최된 회의의 의사일정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내국외 각지에서 온 대표들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창조파와 개조파 등으로 나뉘어져 격론을 벌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회의'는 1923년 1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민 대표 회의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국민 대표 회의는 동년 6월까지 74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창조파와 개조파가 극렬히 대립하다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연표에서는 1919년과 1925년 사이인 '(가)'에 해당한다.

44 - 가인 김병로

44.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분단을 막기 위해 남북 협상에 참석하였다.
- ②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 ③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작성하였다.
- ④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 제도의 기초를 다졌다.
- ⑤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정답> ④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김병로(1887~1964)가 나와 있다. 훈격(건국 훈장 독립장)과 서훈 연도(1963년)에 이어서 공적 개요가 제시되어 있다. 1906년에 최익현 의병 부대에 참여, 1923년에 김상옥 의거 관련자 변호,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진상 조사 위원, 1930년에 신간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역임), 1930년 신간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역임), 1947년 남조선 과도 정부 사법부장 (역임)이 차례로 열거되어 있다.

가인 김병로는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취임하였다(~1957). 이 밖에도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 법조협회 회장을 맡아 사법부의 발전을 위하여 애썼다.

오답 해설>

- ① 분단을 막기 위해 남북 협상에 참석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백범 김구(1876~1949)와 우사 김규식(1881~1950)을 들 수 있다.
- ② (전북)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인물은 우남 이승만(1875~1965)이다(1946.6).
- ③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작성한 인물은 조양 조용은, 즉 조소양(1887~1958)이다(1941.11).
- ⑤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한 인물은 몽양 여운형(1886~1947)이다(1944.8).

45 - 조선 혁명군

45.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의 총사령 양세봉, 참모장 김학규 등은 일부 병력을 이끌고 중국 의용군 부대와 합세하였다. 일본군과 만주군이 신빈현성의 고지대를 거점으로 삼아 먼저 공격했으나 아군이 응전하여 이를 탈취하였다. 아군은 승세를 몰아 적들을 추격한 끝에 당일 오후 3시경 영릉가성을 점령하였다. 5일간의 격렬한 전투에서 한중 연합군은 신빈현 일대 여러 곳을 점령하는 등 커다란 수확을 거두었다.

- ①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② 자유시 참변 이후 세력이 약화되었다.
- ③ 중국 팔로군에 편제되어 항일 전선에 참여하였다.
- ④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였다.
- ⑤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당의 산하 부대였다.

정답> ①

'(가)의 총사령 양세봉, 참모장 김학규 등은 일부 병력을 이끌고 중국 의용군 부대와 합세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일본군과 만주군이 신빈현성의 고지대를 거점으로 삼아 먼저 공격했으나 아군이 응전하여 이를 탈취하였다. 아군은 승세를 몰아 적들을 추격한 끝에 당일 오후 3시경 영릉가성을 점령하였다. 5일간의 격렬한 전투에서 한중 연합군은 신빈현 일대 여러 곳을 점령하는 등 커다란 수확을 거두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조선 혁명당 산하의 부대인 조선 혁명군임을 알 수 있다. 제시된 상황은 영릉가 전투이다(1933.3~7). 조선 혁명군은 1933년 6월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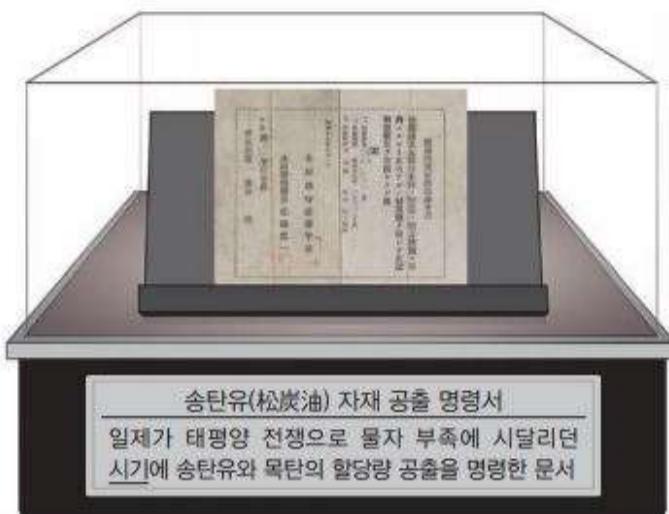
오답 해설>

- ② 자유시 참변 이후 세력이 약화된 단체는 대한 독립 군단이다(1921.6).
- ③ 중국 팔로군에 편제되어 항일 전선에 참여한 단체는 조선 의용군이다(1942.7, 1943년 이후부터 군정학교 학생과 교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팔로군에 배속).
- ④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한 단체는 한국 광복군이다(1940.9).
- ⑤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당의 산하 부대는 한국 독립군이다(1930~1933).

46 - 일제 강점기 말의 모습

46.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국민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 ② 징병제를 찬양하는 친일 지식인
- ③ 국민 징용령에 의해 끌려가는 청년
- ④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어린이
- ⑤ 조선 태형령을 관보에 게재하는 총독부 관리

정답> ⑤

'송탄유(松炭油)* 자재 공출 명령서'가 제시되어 있다. '일제가 태평양 전쟁으로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시기에 송탄유와 목탄의 할당량 공출을 명령한 문서'라는 설명도 나와 있다. 태평양 전쟁 (1941.12.7~1945.9.2)이란 말을 통해 밑줄 그은 '시기'는 일제 강점기 말임을 알 수 있다.

*송탄유: 솔가지를 잘라서 불에 구워 받은 기름

조선 태형령이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된 것은 1912년 4월의 일이다(~1920.3).

오답 해설>

- ① (소학교가) 국민학교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은 1941년 3월의 일이다(제3차 조선 교육령 일부 개정).
- ②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1944년 4월의 일이다.
- ③ 1939년 7월에 제정된 일제의 국민 징용령이 조선에도 적용된 것은 1939년 10월의 일이다.
- ④ 황국 신민 서사가 만들어져 암송이 강요된 것은 1937년 10월의 일이다.

47 - 제3차 개헌(의원 내각제 개헌)

47. (가), (나)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첫째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나) 1. 반공을 국시의 제일 의(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협상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①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었다.

②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③ 의원 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④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⑤ 긴급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정답> ③

(가)에 '첫째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4·19 혁명의 발생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겠다고 발표한 담화문임을 알 수 있다(1960.4.26).

(나)에는 '1. 반공을 국시의 제일 의(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2. 유엔 협상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킨 주역들이 발표한 '혁명 공약'임을 알 수 있다.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진 것은 1960년 6월의 일이다(제3차 개헌).

오답 해설>

① 조봉암(1898~1959)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된 것은 1956년 11월의 일이다(1956.11.10).

②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줄여서 '국보위')가 설치된 것은 1980년 5월의 일이다(1980.5.31).

④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6월의 일이다(1949.6.21).

⑤ (재야인사들에 의해) 긴급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된 것은 1976년 3월의 일이다.

48 - 김영삼 정부 시기의 사실

48.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오늘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은 5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역사적 작업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 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② 칠레와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 ③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 ④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 ⑤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

정답> ①

'오늘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대통령은 5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역사적 작업이 시작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8월의 일이다. 광복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 '첨탑' 철거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996년 11월 13일에 해체를 완료(마지막 발파)하였다. 우리나라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 12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칠레와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4월의 일이다.
- ③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호주제가 폐지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8년 1월의 일이다.
- ④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7년 10월의 일이다(제9차 개헌).
- ⑤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4년의 일이다.

49 - 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실

49.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 ② 국제 통화 기금(IMF)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였다.
- ③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창립 대회가 개최되었다.
- ④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를 실시하였다.
- 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하였다.

정답> ⑤

'사진으로 보는 (가) 정부'라는 제목 아래 '질병 관리 본부 출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 주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시작'이 관련 사진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기존의 국립보건원이 질병 관리 본부로 확대, 개편되어 출범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2003.2~2008.2)인 2004년 1월이며, (제17회)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가 개최된 것도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11월의 일이다(부산, 2005.11.18~11.19). 또 충남 연기군에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세종 특별자치시) 기공식이 열린 것은 2007년 7월의 일이다(2007.7.20). 참고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추진'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중단됨에 따라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로 변경된 것이다[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발족(2003.4)되었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2005.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05년 12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줄여서 '민주노총')이 창립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11월의 일이다.
- ② 국제 통화 기금(IMF)의 채무를 조기 상환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8월의 일이다(2001.8.23).
- ③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줄여서 '경실련') 창립 대회가 개최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1989년 7월의 일이다(1989.7.8).
- ④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를 실시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9년 2월이다(1968년 7월 발표). 우선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1970년에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전주에서, 1971년에 가서야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50 - 역대 정부의 통일 노력

50.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가) - (나)

정답> ③

'역대 정부의 통일 노력'이라는 제목 아래 맨왼쪽 말풍선에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을 발표하였다'는 말이 나와 있다. 7·7 선언이 발표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7월의 일이다. 가운데 말풍선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말이 나와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고향 방문]가 열린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 (1985.9.21-22). 마지막으로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는 말이 나와 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8월의 일이다. 이때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 사이에 공업지구 건설이 합의되었고, 2002년 8월에 개성 공단 착공 추진이 최종 합의되었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에 개성 공단 착공식이 거행되었다.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가)-(다)'가 된다.

- 이 상 -